

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이 허가된 모든 학생에게,

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조지메이슨대 본교의 안창우 교수입니다. 여러분께 글로나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대학생이 되는 것에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늘 보살피 주시던 부모님 품을 떠나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나를 세우고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대학을 다니는 평균적인 연령인 20대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.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,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나,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다양한 시점과 의견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. 다양한 상황과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.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응원하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
지난 두 학기 동안 이곳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. 여러분 세대가 엄청난 peer-pressure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특히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수업 시간에도 느껴졌습니다. 배우는 일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.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,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,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찬성 및 반대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,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묻는 일을 두려워 마시고,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대학 시절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
인류가 당면한 여러 상황 및 문제들은 복잡다단해서 한 사람의 정보나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이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즉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접하고 섭렵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보고 읽는 능력을 기르시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.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실패하시기 바랍니다.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.

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건투를 빕니다. 멀리서나마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안창우 교수 드림.

2019년 7월29일. 본교로 돌아가기 일주일전 인천 송도에서 적었습니다.